

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5-30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1-05-30
2021.05.30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375319287>

kr.theanarchistlibrary.org

2021.05.30

1. [우리노동은우리가알아서하렵니다.]

2021 년, 노동자의안전에대해많은이야기가긴세월동안오갔음에도 불구하고아직도수많은노동자들이죽어나가고있다. 어떤청년일용직노동자는컨테이너철판에깔려아버지의눈앞에서세상을떠났고어떤젊은일용직노동자는손전등이없어서칠혹같은밤에감싸인크레인꼭대기위에서손전등하나없어서발을헛디뎠다. 게다가비록다른산업현장이지만어떤 50 대일용직노동자도용접작업을하다철판에깔려우리결을떠났다. 이모두가현장노동자들은안전장비및교육, 인력에대한투자를요구해왔었지만어떻게든‘효율성’과‘이윤’을추구하던자본가들이비용을아끼려고무시했기때문이다. 자본주의와임금노예제를비판하면서도‘청년에게고함’이라는참으로따뜻한글을썼던크로포트킨이별세한지 100 년이되는지금도자본주의는여전히임금노예제를유지하면서노동자들을소모품처럼착취하다죽음으로내몰고있다.

이렇게글을쓰다보면누군가는꼭‘그래도과거보다는많이나아지지않았는가? 앞으로더나아지면되지않는가?’라고되물을것이다. 보통은이에대해과거보다나아진면도있겠지만근본적인해결, 노동자들의자주적인산업현장운영이이루어지지않는다면이런비극이계속반복될것이라고반론할것이다. 하지만최근에본기사를보면과연과거보다나아지기는했나문의들기도한다.

2021 년 5 월 25 일, IT 대기업네이버의한직원, 그것도개발부서책임자급이업무스트레스를호소한메모를남기고숨진채발견되었다. 이에네이버직원들은개발담당임원의상습적인폭언에서달리다가스스로목숨을끊은것이아닐까하는의혹을제기했다. 어찌보면산업재해보다는그냥개인간의불화가아닐까싶겠지만웃기게도 2 년전에퇴사했다돌아온이임원의복귀를많은직원들이강하게반대했다고한다. 하지만이는반려되고결국많은직원들이어렵פות이예상했던대로누군가를죽음으로몰아가버렸다. 이는엄연히산업재해의일종이라고할수있을것이고이에대해네이버노동조합은움직이기시작했다.

생각해보면참으로어처구니없는일이다. IT 인력이참으로귀중한이시대에, 개발자책임자급마저도기업의이기적인판단과무자비한임원의폭력끝에죽음을택하고만다. 게다가여전히고된현장의일용직노동자들역시너무나도쉽게죽어나가고있다. 이게어찌과거자본주의보다도나아졌다고함부로말할수있겠는가? 민중은, 결국하나의노동자인민중은더이상이런무책임하고반공생적인기업의폭정을용인해서는안된다. 민중은, 노동자는노동현장을조금이라도더자주적으로통제할수있어야한다. 우리의노동은현장에서일하는우리가가장잘아니우리가알아서하자. 그러기위해서는우리는노동조합을필히조직해야한다.

”” 손전등못받아서어둠속추락”...3 년새 12 명사망” :

https://imnews.imbc.com/.../article/6189005_34936.html

” 또 300kg 철판에 깔려”..50 대노동자 참변” :
https://imnews.imbc.com/.../article/6189360_34943.html
” 네이버 개발자의 갑작스런 죽음...” 임원이 상습 폭언” :
https://imnews.imbc.com/.../article/6201948_34936.html

2. [땅고기들에게 고함]

반갑습니다. 범고래입니다. 지난주, 땅고기들이 종차별적 언어를 개선해야 한다고 몇몇 단어들의 개선을 주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먹는 고기들을 칭할 때, “살아있는 존재에 식용하는 동물의 살을 뜻하는 ‘고기’를 붙일 수 없다”며 ‘물고기’라고 부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대신 ‘물살이’라는 단어를 쓰자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물개도, 듀공도, 고래도, 상어도, 불가사리도, 말미잘도 물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두를 하나의 단어로 합쳐서 부릅니까? 우리는 유령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물에 살아가는, 그들이 일컫던 바, 물고기가 아닌 존재들입니다. 단지 어류가 수가 많고, 땅고기들의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어항에 더 많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이토록 무시하여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봅시다. 우리는 고기를, 아니 “물살이”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저들도 그러합니다. 고기를 먹지 않으면 저들은 살 수 없습니다. 설혹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해도, 지력을 소진해 가며 “농사”라고 불리는 대량 사육을 하고, 그렇게 길러진 농작물, 아니, “땅살이”들을 먹어야 살아갑니다. 모든 생물은, 다른 생물을 식용해야 살아갑니다. 왜 “고기”라고 부르면 안 됩니까?

땅고기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적 언어를 개선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그런 흐름에서 동물과 인간을 차별하는 언어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땅고기들과 다른 존재입니다. 왜 자기를 마음대로, 우리를 칭하는 언어를, 자기들 기준에 맞추어 바꾸려고 합니까?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서로 다른 존재면, 다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땅고기들은 본인들의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없습니까? 식민주의의 시대에, 제국주의자들이 “야만인”을 만났을 때, 그 “야만인”들에게 차별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했나요?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와 같은 존재이지만, 안타깝게도 “문화”가 되지 못한 존재들이기에, 불쌍한 야만인들을 같은 인간으로 대하여, 교화하려 했습니다. 백인의 짐을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왜, 우리를 불쌍하게 바라 봅니까?

나는 한명 (名 말고壽命이요. 네.) 의 범고래로서, 땅고기들의 어류 중심주의를 규탄합니다. 물에서 사는 존재들의 독립적인 삶을 무시한 채, 땅고기 자신들의 기준을 들어 대어 일괄적 ‘물살이’로 만들어 버리는 그들의 만행

은, 결국 ‘정규-물살이’와 ‘비정규-물살이’사이의분할을, 그사이의차별을만들어낼것입니다. 나는이러한분할책동을단호히거부합니다.

그리고나는하나가아닙니다. 나는갑작스레딤으로취급당할굴동지와연대할것입니다. 나는좋거나, 웃김의대명사가될권리를빼앗긴개동지와연대할것입니다. 나는‘자용 (암컷과수컷)’이란품에있는존재에서, 갑작스레땅고기들마냥남녀가되어버린전복동지와함께싸울것입니다.

세계물살이의사회혁명만세!

” 몇마리가아니라몇명 (命) ’ 중차별적인어바퀴야”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076949>

3. [노무현정신운운은이제그만하자, 제발]

노무현이죽은날이돌아온지얼마나됐다고노무현정신을운운하면서현대통령을까내리거나, 현대통령을비판-비방하는세력을까내리는사람들이늘어나고있다. 얼마전부터계속나오던소위 ‘노무현정신계승’ 드립때문이다. 그사람이죽고난뒤그사람의정신을계승하겠답시고나서는사람들이우후죽순에, 심지어무슨변화니진보니추구한다는사람들도그런말을쓰고있었다.

여기기사에나오는소위 ‘친노반문’ 이랍시고진보세력의대표주자로나선이들과진석사님을포함해서말이다. 솔직히그사람들, 부끄럽지도않은가? 지금은그렇게표현의자유와열린사회를주장하는사람들이그때에는뭐했나? 노무현이 ‘ 지금과같이민주화된시대에노동자들의분신이 목적을달성하기위한투쟁수단으로사용되어서는안된다.’ 라고말했을때, ‘ 지금시대에노동자들이자살을자제해야한다는내부지시’ 를내렸을때, 그사람들은어디서무엇을하고있었나?

이제는문재인이노무현을배반했다느니하는말이너무나도우습다. 애초에노무현을배반했다는것이어떤의미로사용되는것인지에대해서는그노무현이엄청나게신성화됐기때문에나오는것은둘째치고서라도, 노동자민중의투쟁을찍어누르고대추리에서군인을동원해서위대를해산시키던노무현과마찬가지로열심히경찰권력을통해서위대와노동자민중을해산하고있지않은가?

대체어떤노무현정신을말하는것인가? 표현의자유와다양성을주장하지만그걸찍어눌렀던노무현정신을말하는것인가? 대체왜그런표현을자꾸사용하는것인지우리는도통이해할수없다.

이제그만하자, 제발. 노무현정신은없다. 있다하더라도환상이거나, 폭압의연장선일뿐이다. 이제는그환상에서벗어나자, 제발.

” 문재인은노무현을배반했다” 진중권의말이뼈아픈이유” :

<https://mnews.joins.com/article/24069404#home>

4. [그짐을노동자에게지우려하지마라]

콜롬비아에서정부의생필품세금인상안으로인해촉발된노동대중의투쟁이이어지고있다. 대중의투쟁앞에정부가굴복하여인상을철회하기로했지만빈곤, 불평등, 부조리에대한콜롬비아대중의투쟁은계속되고있다.

세계어디든간에작금의코로나사태에서가장고통받고있는대상은노동대중이며콜롬비아에서도또한그러했다. 콜롬비아의노동대중은부실한사회보장과실업률로고통받았지만지배계급은코로나사태라는짐까지노동대중에게지우려했다.

지금이시기, 지배계급은그들입은자본의손실을노동대중더욱착취하려함으로서만회하려하고있다. 어려운시기에자본을수호하는것에노동자들의경제적삶이달린것인양말이다. 우린선전에넘어가지아니해야한다. 위기상황을악화시키고있는건자본계급이다. 그들의의료민영화때문에노동계급환자들이병실없이죽어가고사내에노동자로부터착취한돈을쌓아두기에일자리없이나앉는실업자들이늘어가며생산성, 경쟁력확보를명목으로한과로와안전부재로노동자들이죽어나간다. 짐을져야할쪽은노동자가아닌자본가다.

세계의모든곳에서, 콜롬비아에서도이곳한국에서도위기상황을이용한자본계급의공격에대한노동대중의저항이이어지고있다. 어려운시기이지만노동자들의연대를견고하고자본에대한투쟁을이어나간다면위기속에서착취와탐욕이나마벗어나보다나은상황을만들수있을것이다.

” 콜롬비아시위: 코로나 19 보다무서운불평등과폭력” :

<https://www.vop.co.kr/A00001572517.html>